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부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목주의 기도 바치는 법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5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2/1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8	이 클라라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15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 '제 1 독서' (한글) /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8	\$ 270.00	\$ 120.00	\$ 300.00

*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미사책 값: \$ 300.00

'2014 년도 재무보고서' 관련 안내

오늘 한인공동체 2014 년도 재무보고서를 나눠 드립니다. 미사봉헌금은 본당 건축기금에 사용됩니다. 우리 한인공동체의 모든 활동은 신자들의 교무금으로만 운영되오니, 금년 2015 년도 교무금을 책정하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인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봉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1 월 21 일(수) 저녁미사는 신부님께서 교구피정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없습니다.

'성당안에서의 예절'에 관한 안내

성당은 하느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성체를 모시고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장소입니다. 미사 중 사적인 대화는 자제해 주십시오. 미사 후 성당 안에서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시고, 대화는 미사후 성당 밖으로 나가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공 동 체 소 식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1 월 30 일부터)

예비자 교리반이 1 월 30 일(금) 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손 케네스 형제님택입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회장님 또는 유 요한 형제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십시오.

2015 년도 '매일미사' 책값: 가정당 \$50

2015 년도 1 년치 '매일미사' 책값을 각 가정당 \$50 (각 가정당 1 권씩 보는 경우)을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성체조배: 2/8 (목) 저녁 6 시 30 분

성체조배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6 시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2 월 8 일(목) 저녁 6 시 30 분에 있습니다.

산클레멘테 Parking Lot Sale: 2/28 (토) 오전



산클레멘테 공동체 '주차장 세일 행사'가 2 월 28 일 오전에 있습니다.

물품을 후원하시고 싶으시거나, 벤더(Vendor)로 참여하실 분은, Susana (661-247-7970) 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Vendor set-up: 오전 5:30-6:30. OPEN to the public: 오전 7 시- 오후 1 시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

세금보고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Charity Donation Receipt)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 (이그레이스 자매)님께 1 월 31 일부터 신청해 주십시오.

'2014 년도 크리스마스 콘서트' 관련 영상 및 기사

지난 연말 '산클레멘테 크리스마스 콘서트' 동영상은 Youtube.com 에 올라와 있습니다. 'San Clemente Choir Christmas Special'로 검색하시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 신문'의 본당소식에도 콘서트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의 계산법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득합니다. 저 벌판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 돌밭을 무슨 힘으로 걸어냈을까. 저 자신도 어리둥절합니다. 뭘하나 똑똑히 할 줄을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특히 계산법이 아주 엉터리입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도 나머지 계산을 잘 알지 못해 큰돈을 주고 거스름 돈을주는 대로 받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영수증도 받지 않고 덜컥 돈을 주고는 낭패를 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삶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거지요. 자식들 보기에 영 얼굴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저를 황당하게 일 저지르는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때문도 있겠지만 물러터진 감성이며, 아무지지 못한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이까지 그래도 이만큼 살아낸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돈 계산은 두고라도 정리정돈이며 미루는 습관이며, 어디 총명한 곳이 하나 없는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가는 저를 보면, 때로는 내가 나를 두고 참 이상하고 야릇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데면데면한 물골로 살아왔는지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 봅니다. 하는 꼴을 보면 저도 저에게 조마조마합니다. 아이고 맙소사! 얼굴을 가리고황당한 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분명 확실하게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그분이 계셨던 겁니다. 10 만 원만 넘어가도 계산을 제대로 못해 일 십 백 천만 하고 세어봐야 겨우 아는 계산법으로, 그것도 많아지면 읽지도 못하는 계산법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늦은 공부를 하며 대학교수가 되고, 생활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뒤에서나 앞에서 하느님이 일으켜 세우며 결핍을 채워 주시지않았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힘들었겠지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겠지요. 저의 불편만 생각했지만, 제가 비틀거릴 때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의 고충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느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느님이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계신다는 증명이지요.

기적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도 눈부시게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작지만 자유로운 내 공간의 잠자리가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아직도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게 웃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법에도 저는 부족합니다.

제 일생 감사의 표현을 하려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천 명의 아이라도 살려내야 하지만, 제 감사는 아직도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새해엔 영혼이 철들어 감사 표현에 능하면 좋겠습니다. 생색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계산법처럼 말입니다. 아멘.

<서울주보에서>